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선교주일입니다. 오늘 봉헌된 주일헌금은 장애인선교단체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입교교육이 오후 1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매일(월-토) 저녁 7시 30분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다음 주일(24일)은 부활절을 맞아 1, 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동부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앉도록 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달력에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김금순 강순배 박영신 이소혜 김진경 장재영 최숙화
 5/1,8 식당 봉사 : 이형숙 권미숙 임영선 김순자 곽혜자 박규석 구성실
 설 거 지 봉 사 : 이국노 김민화 박소진 주경진 이윤정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노우중 김정우 한상익
 새 교 우 : 이주율(6여) 최선미(6여) 서효진(청) 류효은(청) 구은정(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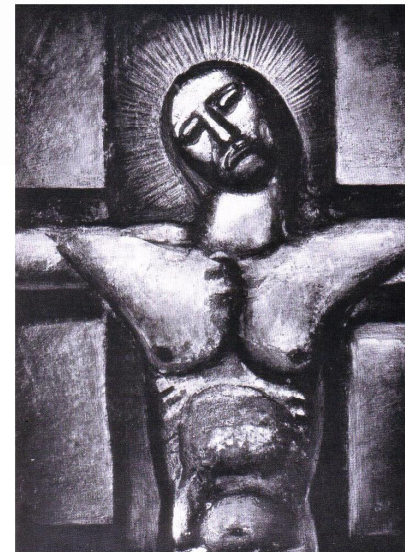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 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 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 육 관 | 오후집회 | 13:30 | 교육관 |
| 중고등부 | 09:30 | 교 육 관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 년 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봄빛에 단혀있던
 꽃망울 터지고, 이른 아침 밝아오는 햇빛에 새벽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
 생명의 빛을 비취 주셔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
 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빛을 비취 주셔서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 주님과 함께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를 살피 주십시오. 막바
 지에 이른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 묵
 상과 신앙실천을 잊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
 가야 함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주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한 모
 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41:10 인도자
 ♣ 교 독 문 129. 종려주일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한완식 장로
 응답송 찬양대
 찬 양 145. 오 거룩하신 주님 다함께
- ♣ 성경봉독 I. 요9:35-41 권하영 학생
 II. 막14:3-9 오자영 집사
-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말 씀 I. 무엇을 보는가? 손성현전도사
 II. 예수는 이 세상에서 외롭다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준우 우순덕 강인식 김정숙 한완식 임정자 김민화 김용길 최영혜
 서원금 윤미경 윤수진 임주빈 최현옥 한상경 정연희 홍성식 이유리
 광새롬 박소진 심정아

월정헌금:

고속이 구명자 김미순 박석희 조항미 박옥순 박인혁 윤주원 최윤선
 이광섭 이유선 방극숙 이인웅 오송경

감사헌금:

한인철 조윤숙 이윤아 정수복 장미란 신진식 변혜정 이은미 홍성식
 이유리 최선미 최윤희 장석원 남은총 이해동 박창운 허정윤 리 봄
 무명4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김범진 김미현 장주연 김재영

생일감사헌금:

구성실 안홍숙 박병선 이해령

| | | | | |
|--|-------|-------|-------|-------|
| | 장 해 속 | 백 해 속 | 백 해 속 | 정 두 리 |
| | 노 순 옥 | 정 경 레 | 정 경 레 | 노 순 옥 |
| | 임 정 자 | 최 경 미 | 최 경 미 | 임 정 자 |
| | 문 영 혜 | 이 명 희 | 박 경 선 | 최 종 미 |
| | 안 정 숙 | 진 정 숙 | 이 봉 배 | 안 정 숙 |
| | 박 흥 재 | 곽 권 희 | 조 영 순 | 박 흥 재 |
| | 박 효 선 | 허 정 윤 | 홍 복 선 | 김 정 숙 |
| | 이 순 정 | 김 금 순 | 김 금 순 | 이 봉 옥 |
| | 이 형 숙 | 권 미 숙 | 임 영 선 | 권 미 숙 |
| | 안 홍 숙 | 오 현 정 | 오 현 정 | 안 홍 숙 |
| | 정 영 선 | 이 현 숙 | 송 양 진 | 김 희 우 |
| | 이 영 란 | 박 미 영 | 방 극 숙 | 유 혜 경 |
| | 박 해 경 | 조 항 미 | 이 기 분 | 최 속 화 |
| | 김 재 흥 | 오 자 영 | 교 회 | 교 회 |
| | 김 기 석 | 이 건 식 | 교 회 | 교 회 |

마음으로 읽는 글

진주소개

정명성

아프고 고통스러우냐, 그래도
뺏아내면 안 된다

뺏아내면 / 그대로 모래알일 뿐이지만
품으면 보석

살이 찢기느냐 / 피를 흘려라 그러나
비명을 지르더라도
입을 벌리지 마라

행여 / 목숨이 피흘리다
소생하지 못하고 말더라도
뺏아내지 마라

그리고 먼 훗날 / 눈물의 임금이 찾아오시면 비로소
상처투성이의 입을 열라

어여쁜 임금이
네 속에서 / 진주를 꺼내시리니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흥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 | |
|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 | |
|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 | |
|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 | |
| 지휘 : 윤주원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 |
|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 도서관장 : 박혜경 | |

| | | |
|------------------------------------|---|------|
| 찬양 | 459(통514). 누가 주를 따라 | 다함께 |
|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 ♣ 봉헌 및 목회기도 | | 인도자 |
| 공동체 소식 |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 다함께 |
| ♣ 보냄의 말씀 | | 다함께 |
| 인도자 :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외로워하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주님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며 사십시오. 아픔을 나누는 자리에 구원이 임합니다. | |
| 다함께 : | 아멘. 주님도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분임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외로움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 축복 | | 담임목사 |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선교회 | 고난주간 기도회 |

| | | | |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김기석 목사 | 방문성 장로 | 박규석 집사 |

| | | |
|----|------|-------------------------|
| 4월 | 영접위원 | 조병무 김훈동 박석희 유경순 조항미 오자영 |
| | 헌금위원 | 한상익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성찬식 순서

· 성찬으로 초대

집례자 :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는 거룩한 고난주일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 시작기도

집례자 :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회 중 :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집례자 :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하셨습니다.

회 중 :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시고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집례자 :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 성찬 제정사

집례자 :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 기념사

집례자 :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회 중 :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 성령 임재의 기원

집례자 :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 주시사, 차려 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회 중 :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 영광 찬양

집례자 :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회 중 :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회 중 :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 중 :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

회 중 : 아멘.

· 분별례

집례자 :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 중 : 아멘.

· 분급

- 분급위원들 앞으로 나아가 성찬을 받은 후 제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

· 성찬 후 감사기도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